

백과사전(Encyclopedia)

백과사전(Encyclopedia)

▶ 어원

- Enkloi (모든 것에 걸치는) + paideia(학습, 교육)
- 초기 개념
 - 지식 전 분야에 걸친 교육자료
 - 17세기 이후 인간이 지닌 지식의 총체를 요약한 하나의 저작을 지칭
 - 류서(類書)

▶ 정의

- 모든 지식의 창고
- 과학, 자연, 인간활동에 관련된 모든 주제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 순서로 배열하고 이를 풀이한 정보원

▶ 목적

◦ 교육

- 출현 초기의 목적
- 독자에게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달

◦ 정보제공

- 신속한 탐색과 요약된 정보의 제공

▶ 기능

◦ 사실확인

- 즉답형 질문에 대한 해답 제공

◦ 일반적인 배경정보

- 설명을 위한 자료나 정의 제공, 특정 주제에 연관된 주제로의 안내

◦ 사전정보

- 연구 목적을 위한 유일한 자료는 아니며, 연구주제에 대한 예비지식과 관련 자료 안내 기능

역사 왜곡 바로잡기 콘텐츠 수출 첫걸음

[한겨레] 알제리 바이어를 만나 분위기 잡는다며 까뮈의 문학작품 얘기를 꺼낸다면? 그 협상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만나 일제시대 한국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알제리에서 오래 근무한 국내 기업 직원 얘기다.

기업이 나라 밖 시장에 진출하거나 제품을 수출하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오폴리틱스'팀 덕에 이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지오폴리틱스란 엠에스의 홍보·법무·개발·용어제작팀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조직 안에 있다. 지오폴리틱스팀은 해외 지사에도 있으며, 본사 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한국 엠에스도 지오폴리틱스팀 한국지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엠에스는 게임이나 백과사전 등을 내놓을 때마다 지오폴리틱스팀의 검증을 받는다. 역사나 문화를 왜곡해, 비난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엠에스는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출시한 멀티미디어 백과사전 '엔카르타'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임나일본부설을 채택해 거센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때문에 지오폴리틱스팀은 제품에 언급된 나라에 있는 지사 팀의 자문을 받고,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까지 청한다.

엠에스는 이 과정을 통해 개인용컴퓨터 게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II'를 내놓기에 앞서 영웅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빼고, 이순신을 추가했다.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게임에서 비행기에 그려졌던 일장기도 뺐다. '엔카르타'에서 문제가 됐던 임나일본부설을 삭제하고, 동해와 일본해도 함께 표시했다. 한국 엠에스 쪽의 요구에 따라서다. 또 일본 엠에스의 요청에 따라 4개로 돼 있던 게임 내 괴물의 손가락을 5개로 늘렸다. 애초 'Pusan'으로 돼 있던 부산의 영문지명을 'Busan'으로 바꾸고, 독도가 다케시마로, 압록강이 '알루리버'로 표기됐던 것도 고쳤다. 엠에스는 "지오폴리틱스팀은 '엔카르타 백과사전'을 내놨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기업 이미지도 실추되는 대가를 치른 뒤 98년에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이 조직이 가동되기 시작한 뒤부터는 역사나 문화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권찬 한국 엠에스 이사는 "실수로라도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했을 때는 후유증이 오래 간다"며 "온라인게임 같은 콘텐츠 수출업체나 해외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참고할만 하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Baidu)가 중국 정부에 의해 접속이 금지된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를 오픈했다.

바이두의 백과사전은 이용자들이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이라는 점에서는 '위키피디아'와 같지만, 섹스, 테러리즘, 중국 정부에 반(反)하는 콘텐츠 등은 정부의 검열에 의해 삭제된다.

바이두의 백과사전은 중국정부의 인터넷 이용 촉진과 감시 정책을 잘 이용한 움직임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4월 베타로 시작한 바이두의 백과사전은 오픈 일주일만에 2만 5,000건이 등록되는 등 이용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1억 1100만명이다. 중국 정부는 비즈니스와 교육용으로 인터넷 이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인터넷 검열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 검열에 있어서는 정부체제에 반하는 콘텐츠가 있는 해외 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해외 사이트를 거점으로 하는 구글은 중국의 검열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바이두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백과사전의 유형(편찬목적과 기술형식에 따라)

- 대항목중심 사전
 - 연관된 사항들을 하나의 종합체로 전달
 - 백과사전 원래의 목적인 교육적 목적을 충실히 이행
 - 이용대상을 학자나 전문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논술형으로 기술
 - Encyclopedia Britannica
- 소항목중심 사전
 - 지식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과 사전의 참고적 기능 강조
 -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술형으로 기술
 - 독일 Brockhaus, 최근 발행되는 대중적 백과사전
- 종합사전
 - 대항목과 소항목을 병용하는 유형
 - 대항목의 교육적 기능과 소항목의 참고적 기능을 병행
 - 두산동아대백과사전, 브리태니커백과사전, Encyclopedia Americana
- 정보중심 사전
 - The New Columbia Encyclopedia

백과사전의 유형(주제 수록범위에 따라)

- 일반백과사전
 - 백과사전의 유형 중 가장 전통적인 것
 - 주제분야 전반에서 표출어를 선정하고 각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모든 정보를 망라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사전
- 주제백과사전
 - 일반백과사전과 전문백과사전의 중간적 위치
 - 관련된 다른 분야의 견해를 함께 보고자 하는 학제간 연구에 유용
- 전문사전
 - 한 주제에 관한 상이한 양상과 관점에 대한 개요 기술
 - 특정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논술



전자백과사전

- ▶ 온라인 백과사전
 - 1983년 Academic American Encyclopedia가 상용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해 최초의 서비스 제공
 - 1994년 Britannica online에 의해 웹기반 정보제공
 - 대부분 웹 버전 백과사전은 구독기반이지만 간단한 정보의 경우 검색포털이 제공하는 백과사전 정보 활용
- ▶ CD-ROM / DVD-ROM 백과사전
 - 현재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대용량 멀티미디어 구현
- ▶ 특징
 - 검색 용이
 - 멀티미디어 구현
 - 이용자 중심- interactivity
 - 대용량
 - 인쇄, 저장, 편집 및 Update편리
 - 경제성
 - 동시접속 가능
 - 보존 용이

백과사전의 발전-한국

▶ 고사촬요 (攷事撮要)

- 서지학자들이 꼽는 최초의 백과사전
- 어숙권(魚叔權) 등이 1554년(명종 9) 왕명을 받아 《제왕역년기(帝王曆年記)》 및 《요집(要集)》 등을 참조하여 1589년 편찬
- 조선 전기의 사대교린에 관한 사항이나 관직, 제도, 풍속, 지리 등 80여 항목 기술

▶ 지봉유설(芝峰類說)

- 역사학자들이 꼽는 최초의 백과사전
- 조선 중기 실학자 지봉(芝峰) 이수광이 세 차례 중국 사신에서 얻은 견문을 토대로 1614년에 이수광이 편찬
- 총 3,435개의 항목을 천문, 지리, 경서, 문장, 기계, 궁실, 식물 등 25개로 나누어 설명
- 천주교와 아시아 제국의 문물도 소개하고 있는 본격적인 백과사전

▶ 성호사설(星湖僊說)

- 이익이 평소의 기록과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을 1740년경에 후손들이 정리
- 30권 30책의 규장각 소장본 등 여러 필사본으로 전해오다가 수차례 영인본으로 간행되었고 민족문화추진회에 의해 한글 완역본도 간행
- 주제에 따라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 등 다섯 부분에 걸쳐 중국의 학술, 사상, 제도, 풍속 등 고증 + 우리나라의 역사, 정치, 사회, 경제, 풍속, 언어 등에 관한 해설
- 성호의 실학사상과 근세사회연구의 귀중한 자료

백과사전의 발전

▶ 한국의 현대백과사전

◦ 학원사의 <대백과사전>

- 1958년 전 5권으로 간행
- 인문, 사회, 지리, 자연과학 등 학문 전반을 가나다순으로 배열
- 1966년 <세계대백과사전>으로 증보판 출간
- 1970년 <원색세계대백과사전>으로 증보판 출간

◦ 동아출판사의 <동아원색대백과사전>

- 1984년 전 30권으로 출간, 우리나라 백과사전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향상시킴
- 1993년 두산그룹이 동아출판사를 인수하면서 기존판을 전면 개정하여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출판

엔사이버(EnCyber)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제공하다가 현재,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자료 제공.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연계.

- 동아일보사-한국브리태니커 공동의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 1994년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관련 항목을 대폭 보완
 - 전체 항목의 30%이상이 한국에 관한 것
 - 네이트와 연계되어 있음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새로운 한국민족문화 창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한 사전
 - 역사, 자연, 생활, 사회, 사고, 언어, 예술 등 민족문화의 모든 주제를 다룸
 - 1980년에 편찬작업에 착수,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연차적으로 간행
 - 2001년부터 전자적 형태로만 발행
 - 현재, ENCYKOREA

- 동서문화사의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 1996년
 - 현재, 야후와 연계

백과사전의 발전

▶ 정보중심 백과사전

◦ 유레카 중앙백과사전

- 1995년 중앙일보사가 편찬
-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짧고 간단하게 설명
- CD-ROM <중앙멀티미디어백과>

▶ 학습용 백과사전

◦ 21세기 웅진학습백과사전

▶ 포털 제공 백과사전

◦ NAVER 지식백과

개방형 백과사전

▶ Wikipedia

-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 2001년 1월 15일 시작
-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재단이 운영
- 누구나 쉽게 웹 페이지의 내용을 쓰고 지우고 고칠 수 있는 인터넷미디어 게시판 기술인 Wiki 개념이 적용
- Web 2.0 개념과 철학인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3대 요소 실천
- 과학분야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정확도가 230년 전통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필적하는 것으로 보고됨

- Rorschach test?

Open Encyclopedia?

'웹 2.0 시대'의 상징인 위키피디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쓰고 편집할 수 있는 개방형 온라인 사전으로 네티즌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데도 기고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를 인용, 24일 보도했다. WSJ는 위키피디아를 떠난 기고자 수가 지난 1~3월 석 달간 4만9000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1년 처음 선보인 위키피디아는 현재 271개 언어로 쓰여진 1400만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정 기고자 수만 30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온라인 사전으로 성장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위키피디아 방문자 수는 약 20% 증가했으며 세계 누리꾼들의 방문 순위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초창기의 참신성이 점차 퇴색하고 각종 거짓 정보들이 실리면서 내용의 신뢰성 시비가 자주 발생, 위키피디아 기고자들이 올 들어 영문판에서만 2만명가량 줄었다고 WSJ는 전했다. 특히 생존해 있는 유명 인사들에 대한 악의적 정보 게재는 위키피디아의 명성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말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의 경우 위키피디아에 오른 인물 소개에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뇌일혈로 사망했다'고 상당 기간 기록돼 있었다. 결국 위키피디아는 교육 지책으로 생존인물 항목에 한해 '자발적 전문가들'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편집 방안을 내놓았다.

'열린 사전'이라는 모토에 맞지 않게 위키피디아의 기고자 층이 지나치게 특정 층에 쏠려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게 위키피디아의 표방하는 특징이지만 실제 기고자의 평균 연령대는 26.8세이며, 기고자 중 87%가 남성으로 나타났다고 WSJ는 전했다. (조선일보)

백과사전의 평가

◦ 목적과 범위

- 목적 : 지식의 체계적 전달? 단편적 정보제공? 양자의 조합?
- 범위 : 국제적? 자국 중심? 독자 수준에 따라 내용의 깊이가 일치하는가?
- 전자본일 경우, 본문 외 외부 정보 (동영상, 그림, 사진 등의 그래픽 정보), 인터넷 링크는 잘 되어 있는가?

◦ 권위

◦ 접근성

- 색인의 풍부함과 적절성, 색인방법의 다양성
- 상호참조의 형식과 상관성
- 전자본일 경우 평가 포인트
 - 다양한 접근점을 통해 검색 혹은 브라우징이 가능한가
 - 자연어 질문 처리능력이 있는가
 - 부울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는가
 - 다양한 절단 검색이 가능한가
 - 검색을 제한시키는 필드검색이 가능한가
 -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활용되는가
 - 검색 진행상태나 검색결과 수가 제시되는가

◦ 최신성

- 타임래그와 개정빈도
- 수록된 데이터의 마감연도와 출판연도의 차이
- CD-ROM일 경우 출판사로부터 개정판 입수, 웹 버전의 Update주기

◦ 기술형식

- 표현방식의 독자 수준(청소년용, 성인용, 전문가용)과의 적합성
- 전체적인 일관성

◦ 형태적 특징

- 인쇄본
 - 제본, 레이아웃, 용지, 활자체의 적절성, 삽도의 풍부성과 본문과의 일치성
- 전자본
 - 화면 디자인, 메뉴이용 용이성, 멀티미디어 정보의 수준과 질, 검색결과의 정렬/저장/출력/편집 기능의 유무, 이미지 정보의 인쇄/복사/저장 가능성

◦ 특성과 가격

- 개정판일 경우, 구판과 구별되는 요소나 개정의 정도
- 정가와 판매가격의 차이, 유사 제품 및 인쇄본과 전자본 간의 가격 비교

백과사전 살펴보기-우리나라

- 발행형태 / 포털사이트와 연계 / 인터넷화면 메인구성 / 특징

두산세계
대백과
사전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파스칼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
화대백과

21세기
웅진학습
백과사전

백과사전 살펴보기-우리나라 온라인백과사전

- 자료제공 / 인터넷화면 메인구성 / 특징

네이버

다음

네이트

위키백과

야후

백과사전 살펴보기-해외

- 발행형태 / 인터넷화면 메인구성 / 특징

Britannica

Americana

Citizendium

Allrefer

Wikipedia